



국립나주박물관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시간속으로

오는 22일 개관하는 국립나주박물관(이하 나주박물관)은 영산강유역에 남아있는 선사와 역사시대의 문화를 수집, 보존하고 전시함으로써 이 지역에 형성돼 있는 독특한 토착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내 어떤 지역과도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영산강유역 옹관고분 문화권의 중심지였던 반남고분군에 나주박물관이 자리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방에 세워진 국립박물관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유적이 있는 지역에 박물관을 세우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유적 속에 건물을 세운 나주박물관의 건립은 그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도다.

지난 주말 찾은 나주박물관에서는 영산강의 역사와 삶의 흔적들을 살필 수 있었다. 입체적인 전시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유물을 발굴현장에서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였다.

박물관 아와 정원을 지나 신상호 나주박물관 학예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1층에 있는 제1상설전시실로 향했다. 제1상설전시실 내부는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으로 설계되고 황토색으로 칠해져 고분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 관람객들에게 고분이라는 유적 속에서

제1상설전시실 '삼한의 중심 마한' '영산강 옹관' 인상적

개관기념 특별전서 '분청사기 모란 무늬 자라병' 첫 공개

그 안에 담긴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 설계했다는 것이 박물관의 설명이었다.

제1상설전시실은 '역사의 여명', '삼한의 중심 마한', '영산강 유역의 고분', '강의 길, 바다의 길' 등 4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혁신도시 건립이 한창인 나주 도민동에서 나온 석기 시대 유물 관람을 시작으로 완도 청해진 관련 유물이 마지막에 전시되고 있다. 전시실 중간에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

제1상설전시실의 백미는 '삼한의 중심 마한'과 '영산강 유역의 고분'.

'삼한의 중심 마한'에서는 마한의 형성과 생활상 등을 다루고 있었다. 가로 15m 벽면에 상영되는 마한의 역사를 다룬 영상이 시선을 붙잡았다. 특히 원

형 전시실 내부에 담긴 마한의 유물들과 국내 박물관에서는 최초로 선보인다는 노출형 전시 시스템인 일명 '토기 나무'가 인상적이었다.

나주박물관을 대표하는 국보 제295호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을 지나 '영산강 유역의 고분' 존을 들어서자 탄성이 절로 나왔다. 영암 태간리에서 나온 길이 3m가 넘는 독널을 관을 비롯해 20여점의 대형 옹관이 원형으로 복원돼 존 중앙에 전시되고 있었다.

존 양옆으로는 옹관에서 출토된 화려한 장식품과 토기 등이 함께 진열되고 있다. 한쪽 벽면에는 고분 내부와 그 안에 담긴 유물들을 함께 전시해 실제 고분을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전시 시스템이 있었다. 또 관람객이 다가가

면 불투명 유리가 투명 상태로 변하면서 실제 고분을 보여주기도 했다.

제1상설전시실 옆에 위치한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기념 특별전 '천년 목사골 나주'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번 특별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분청사기 모란 무늬 자라병 등이 인상적이었다.

지하로 내려가자 제2상설전시실과 개방형 수장고가 나왔다. 제2상설전시실은 체험형 전시실이다. 고분 내부의 모습을 해부학적으로 보여주고,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또 현미경 등으로 다양한 유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옆으로는 개방형 수장고가 한눈에 들어와 체험과 전시 관람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신 학예실장은 "박물관에서 30분 내외의 거리에 도감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품고 있는 월출산, 영랑시인의 생가, 다산 실학사상의 산실이었던 다산 초당이 있다"며 "나주박물관은 또 다른 시간여행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삼한의 중심 마한' 존에 있는 원형전시실에서는 노출형 전시 시스템인 '토기 나무'와 광주 쌍충동, 담양 태목리, 해남 신곡 유적 등에서 나온 마한의 화려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와인 파티

광주프랑스문화원, 영화·상송·작품 감상... 29일 콘스트리문지

'상송이 흐르고, 프랑스 전통요리를 맛보고, 포도주 한잔까지.'

보졸레 누보의 매년 11월에 출시되는 햇와인을 말한다. 올해로 개소 30년을 맞은 광주프랑스문화원(원장 최승은)은 해마다 보졸레 누보와 함께하는 파티를 열어왔다. 올해는 좀 특별한 공

간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29일 오후 7시30분부터 열리는 올해 파티 장소는 광주시 동구 장동 콘스트리문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프랑스 와인 소개와 함께 와인 강연과 시음회가 진행된다. 또 프랑스 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프랑스 상송 감상과 공연 행사도 준비했다.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당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도 29일부터 시작돼 한달간 계속된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상송 CD와 DVD, 포도주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드레스 코드도 있다.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파랑, 흰색, 빨강색이 들어간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고 참가하면 된다. 이중에서 베스트 드레서도 선정한다.

예약 마감은 20일까지다. 티켓 가격 2만2000원. 문의 062-527-2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 모든 사랑을 담아

우전 임원식 여덟번째 시집 펴내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 시인이 존재하고, 시는 사랑에 의해 탄생하지요."

우전(宇田) 임원식(72)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사랑에게 시를'(푸른길간)이 나왔다. 지난 6월에 펴낸 '초록빛소리'(시문학사 간)에서 고향을 노래했던 시인은 이번에는 '사랑'을 주제로 감성적 언어를 선보인다.

사랑은 인류의 보편적 주제로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가장 많이 다뤄왔던 테마이기도 하다. 임 시인이 상정하는 사랑도 이 같은 관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인은 "사랑은 인류 역사의 꼭두새벽부터 우리가 지상에서 소멸하기까지 태양처럼 떠도는 영원한 테마"라고 말한다.

시집에 수록된 80여 편의 시는 모두 자연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의 향수는 사랑의 감정과 맞물려 잔잔한 울림을 준다.

"붉은 열매를 위한 황금빛 산수유에게/ 가시는 임에게가 아닌 소월의

약산 진달래에게/ 하늘을 물들이는 진보라 도라지꽃에게/ 눈꽃을 머리에 인/ 질푸른 소나무에게/ 어머니가 기다리던 초가집 대문간에... 이 시를 띄웁니다." ('사랑에게 시를' 중에서)

표제작이자 서시인 '사랑에게 시를'에서 시인의 기억은 끝없이 확장된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있는 초가집, 마을의 들녘, 바람과 구름 등에 이르기까지, 시인은 사랑의 시를 담아 보낸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삼라만상의 진면목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아름다운 목소리도 낼 수 없어요. 사랑은 시가 되고, 시는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냅니다."

이 시집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시마다 해설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응대 시인이 덧붙인 해설은 시의 의미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읽을거리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올해의 책' 대상 '이오덕 일기세트'

책만사 선정... 베스트셀러 정유정 '28'



출판인 모임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책만사)은 '2013 올해의 책' 대상에 이오덕 씨의 '이오덕 일기 세트'(전5권, 양철북)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실비아 플라스 시 선집'(실비아 플라스·마음산책)과 '28'(정유정·은행나무)는 문학·비소설·예술 분야에서 선정됐다. '28'은 올해의 베스트셀러 분야에서도 수상작으로 뽑혔다.

그밖에 '중국사상사'(거자오광·일빛)와 '한국의 야생화 바로 알기'(이

동혁·이비검), '로이드 칸의 아주 작은 집'(로이드 칸·한즈미디어), '자유로서의 발전'(아마티아 센·갈라파고스), '이순구의 웃는 얼굴'(이순구 그림·뜨인돌어린이), '자폐가 뭔지 알려 줄게'(스테파니 드로리에 지음), '소아당뇨가 뭔지 알려줄게'(마리안느 트랑블레·이상 한울림어린이) 등이 부문별 수상작으로 뽑혔다.

책만사는 출판문화 연구와 교류를 위해 48개 출판사 대표가 20년 동안 활동하는 모임이다.

/연합뉴스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